

■ 체 게바라의 평화공존 연설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카스트로 형제를 비롯한 게릴라 대원들과 함께 무장투쟁을 통해 쿠바혁명을 승리로 이끈 체 게바라는 혁명 정권의 중앙은행 총재와 산업부 장관으로서 쿠바의 경제 구조 개혁과 산업화를 추진했다. 또 체 게바라는 각종 혁명정책을 주도할 뿐 아니라 노력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구현에 앞장서고자 했으며, 위계서열을 철폐하고 관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1964년 여름 콩고의 고(故) 파트리스 루뎀바(Patrice Lumumba)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쿠데타로 집권한 모부투 장군의 세력에 대항해 저항을 시작하자 체 게바라는 이를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칭송했다.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하는 “제2, 제3, 아니 수많은 베트남”을 원했던 체 게바라에게 콩고의 수상 루뎀바의 피살과 모부투 장군의 등장은 미국과 옛 식민통치자의 개입이 빚어낸 결과였다. 1964년 12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연합(UN) 총회에 쿠바 대표로 참석한 체 게바라는 짙은 올리브색 군복을 입고 연단에 올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꼭두각시 국가들을 비판했을 뿐 아니라 콩고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곳에 소개한 번역은 연설문의 일부임을 밝혀둔다.

원문 출처

<http://www.scribd.com/doc/402426/At-the-United-Nations-Che-Guevara>



국제연합 총회에서 연설하는 체 게바라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중략)

이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의혹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상이한 사회·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공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져왔습니다만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 세력은 평화공존이 강대국들의 배타적인 권리인양 떠벌려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카이로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비동맹국 정상과 정부의 제

2차 회의 선언에 담겨진 내용이 생각납니다. 세계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화공존 문제가 강대국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은 국가의 규모나 선행하는 역사적 상호관계, 특정 시기 일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공존의 형태는 자주 짓밟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왕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 제국주의의 음모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남베트남에 위치한 양키 기지로부터 온갖 종류의 믿을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분단국가인 라오스 또한 온갖 종류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민들은 공습에 의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체결한 협정은¹⁾ 무시된 채 그 영토의 일부는 끊임없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비겁한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일부 국가만 알고 있는 이 침략의 역사를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경이 침탈당하고 적의 폭격기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군 전함이 영해를 침범해 자신의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위협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남베트남 인민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을 이제 공개적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할지 모릅니다.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심각한 경고를 던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더욱이 동남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생명이 미국 침략자들의 변덕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1) 여기서 체 게바라가 언급하는 협정은 인도차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라오스·미국·소련·영국·중국·캄보디아·프랑스·북베트남 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1954년 7월 21일 체결된 협정이다.

직면해있습니다.

평화공존은 키프로스에서도 잔인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터키 정부와 나토의 압력에 맞서 키프로스 정부와 인민들은 주권 옹호를 위해 단호하고도 영웅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이 지역에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존을 강요하고자 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억압받는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연합해 이들에게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제연합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화공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단지 주권국가들의 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로서 국가 간의 평화공존이 착취자와 착취를 당하는 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공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역설해왔습니다. 더욱이 모든 형태의 식민 압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달성할 권리는 이 기구가 천명하고 있는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포르투갈령 기니와 앙골라, 모잠비크 등 식민지 인민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까닭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요구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을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인민들과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페드로 알비수 캄포스와²⁾ 연대하고자 합니다. 알비수 캄포스는 감옥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지사 알비수 캄포스

2) 알비수 캄포스(Pedro Albizu Campos, 1893~1965):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운동가.

평생을 보내고 72세에 찾아온 중풍 탓에 말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석방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선적인 조치였습니다. 알비수 캄포스는 아직 자유스럽지 않지만 굴복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의 상징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감옥 생활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 정신적 고문, 고독, 인민과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그의 출생지에서 보여준 정복자와 그 하수인들의 오만 등, 그 어떤 것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쿠바 대표단은 우리 아메리카에 영예를 수여한 이 애국자에게 인민을 대신해 감사와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국은 여러 해에 걸쳐 푸에르토리코를 혼합문화의 표본으로 개조시키고자 애써왔습니다. 영어식 억양을 띤 에스파냐어, 마치 영어라는 등뼈에 달려 있는 관절과 같은 에스파냐어, 달리 말해 더 나은 것이 양키 병사 앞에 굴복 당하게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병사들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전쟁에서 대포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전 미군이 비무장의 파나마 인민들에게 자행한 대량 학살에서 빚어진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는 양키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저지른 최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지와 역사적 운명에 대한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 인민들은 자신의 문화와 라틴 정서와 기질을 잘 보존해왔습니다. 이는 그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섬에 사는 대중에게 독립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화공존의 원칙에 각 민족의 의지를 우롱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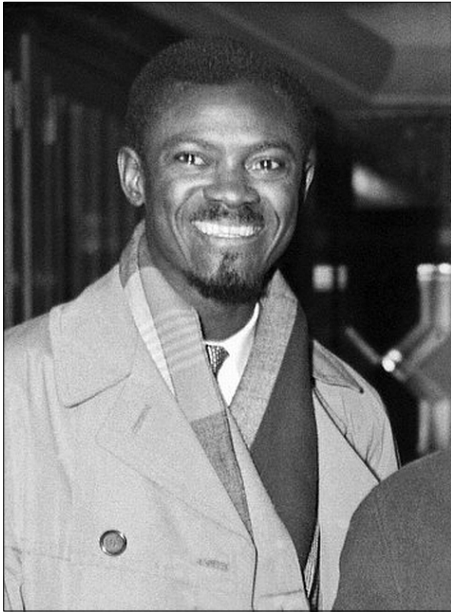
스페인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서전쟁으로 미국의 속령이 되자 알비수 캄포스 등이 주축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영국령 가이아나(Guyana)의 경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디 제이건(Cheddi Jagan)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온갖 탄압과 계략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인민들의 의지를 우롱하고 비밀스런 방식으로 들어앉힌 새 정부의 유순함을 보증할 길을 찾기 위해 이곳의 독립은 지연되어왔습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이 나라에 단지 거세된 자유만을 허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이아나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길이 무엇이든 간에 쿠바는 그 인민들에게 도덕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인 과들루프(Guadeloupe)와 마르티니크(Martinique)가 오랫동안 자치를 위해 싸워왔으나 아직 얻지 못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다시금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한 인종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들은 다른 인종에 대한 인종의 우월성이 아프리카 대륙의 공식 정책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처벌 없이 살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근현대사에서 독특한 콩고의 고통스런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각 민족의 권리가 어떻게 아무런 제지 없이 후안무치하게 우롱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사건 발단은 콩고가 지니고 있는 거대한 부(富)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런 콩고의 부를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연합을 처음 방문한 뒤 행한 연설에서 피델 카스트로 동지는 민족 간의 공존 문제는 결국 타 민족의 부



콩고의 초대 총리 루뭄바

에 대한 잘못된 사유화 문제로 귀결된다고 갈파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약탈 철학을 그만 두라. 그러면 전쟁 철학 또한 종언을 고할 것이다.”

그러나 약탈 철학은 포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뭄바를³⁾ 살해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이 오늘날에는 백인을 방어한다는 미명 아래 콩고인 수천 명을 살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뭄바가 국제연합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배신당한 것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국제연합군이 그 나라를 점령한 뒤에 이어진 음모와 계략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아프리카 애국자에 대한 암살은 국제연합군의 후원 아래 아무런 제지 없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모이즈 촘베가 애국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 세력 간의 갈등을 틈타 콩고에서 국제연합의 권위를 우롱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벨기에의 지원을 받으며 카탕가의 분리를 추진하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이 끝난 뒤 카탕가에서 쫓겨난 촘베

3) 루뭄바(Patrice Emery Lumumba, 1925~1961): 벨기에 식민통치 하에서 반식민 독립 운동을 전개했으며, 1960년 6월 독립한 후, 국민투표로 콩고의 초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7월 11일, 벨기에의 지원을 받은 카탕가(Katanga)의 주지사 모이즈 촘베(Moise Tshombe)가 독립을 선언하는 등, 정정이 불안하자 루뭄바는 소련의 지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9월 17일 루뭄바 내각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모부투(Joseph Mobutu)는 CIA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루뭄바를 내각을 전복했으며, 루뭄바는 1961년 1월 17일 살해당했다.

가 콩고의 군주와 주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어찌 정당화할 수 있으며,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 세력이 국제연합을 꼬드겨 그런 통탄할만한 역할을 떠맡게 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카탕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극적인 대중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춤베는 오늘날 권좌에 앉아 있고, 콩고의 부는 제국주의 세력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만한 나라들이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전쟁상인들에게 수지맞는 장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범죄 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지불을 거절하는 소련의 정당한 태도를 쿠바 정부가 지지하고 나선 까닭입니다.(이하 생략)

[박구병 옮김]